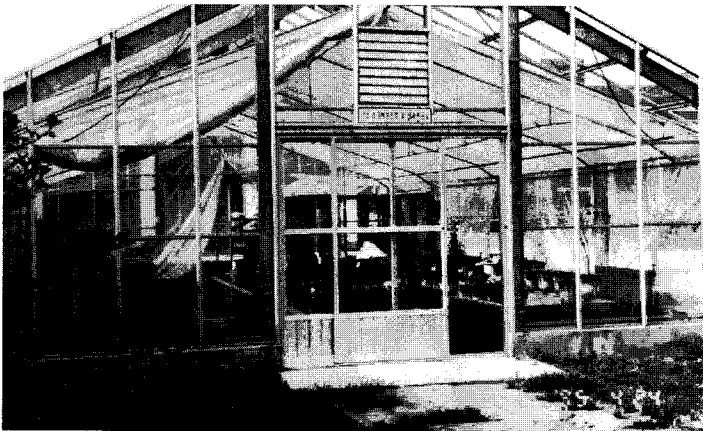


# 종자산업육성 887억 지원

## 2004년까지 유전자원 수집·신품종 개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2억원을 투자하는 등 오는 2004년까지 88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최근 확정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전자원 수집과 보존시설 확충, 신품종육성 지원 등에 99년 72억원, 2000년 136억

원, 2001~2004년 679억원 등 모두 887억원을 지원한다는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을 위해 27억원을 지원하고 수집된 유전자원의 특성 등을 평가조사하는데 52억원을 들여 지원키로 했다. 또 202억원을 들여 50만점의 종자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5만점의 영양체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액체질소탱크 등의 보존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또 230억원을 민간종자회사에 보급종자 구매자금으로 지원하고 298억원의 신품종육성 자금을 민간 종자회사 및 개인 육성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 종자회사의 시설보완을 위해 67억원을 육재종자시설및 기자재 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재현 농림부 사무관은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두 887억원의 투자계획이 마무리되는 2004년에는 종자수출이 지금의 10배 정도인 1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에서 열리는 국제건강식품 박람회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김시관 박사를 파견, 고려인삼의 다이옥신방어 효과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인삼 수출 증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4개 국어로 되어 있는 고려인삼 홈페이지를 7개 국어로 확대하는 등 사이버 마켓을 이용한 인삼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진안 홍삼 홍콩수출 전북인삼조합

세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진안 홍삼이 홍콩으로 수출된다. 전북인삼조합은 최근 1484kg의 홍삼을 홍콩 무역업자와 20만 3천달러에 수출계약을 맺고 지난달 4일 부산항에서 선적했다. 전북인삼조합의 이번 홍삼 수출은 인삼의 대량 수출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전북인삼조합이 가공 공장 가동이후 첫 수출품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인삼을 엄선,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가공 기술을 발휘해 동남아 무역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바이어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진안군은 전국 제일의 인삼 주산지로, 750여 ha의 재배 면적에서 해마다 940여 톤의 수삼을 생산해 내고 있다.

### 한약재 '소회향' 국내산 중국산보다 우수

농촌진흥청 영남농업시험장 약용작물연구팀은 소회향, 위담, 구토 등에 치료효과가 있어 한약재와 향신료 등으로 쓰이는 1년생 특용작물인 소회향의 주요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품질이나 약효가 훨씬 좋다고 밝혔다.

영남농업시험장 약용작물연구팀에 따르면 소회

향의 주요성분인 정유량은 국내산이 3.5%로 중국산의 2.9%보다 0.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리작용의 원인물질인 카본함량은 씨앗 100g당 1g으로 중국산의 0.4g보다 2배 이상 많은 등 품질과 약효 모두 중국산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락처:0527-350-1235)

### 원에·특작 종합자금지원 확대 대상 '최소경영단위 이상 농가'로 완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원예·특작분야 종합자금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이 현행 '전업농 규모 이상'에서 '최소경영단위 이상 농가'로 완화돼 지원 대상농가가 확대된다.

최근 농림부는 올해 종합자금제도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축산분야는 신청자가 크게 몰려 현재 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원예·특작분야는 지원대상을 전업농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원예·특작분야의 지원기준을 당초 '전업농 규모 기준 이상'에서 전업농 규모의 50% 내외 경영규모를 가진 농가를 포함하는 '최소경영규모 이상'으로 완화,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현재 생산시설로만 제한하고 있는 종합자금의 시설자금 대출용도를 생산시설과 연계된 부대시설까지 지원키로 했다.

### 경기 민통선 지역 인삼 경작지 조성

경기 파주·연천 관내 민통선 지역에 대단위 인삼 경작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 북부 출장소 5일 개성, 김포인삼협동조합과 민통선내 인삼 재배지를 조사한 결과 파주 773ha, 연천 232ha 등 모두 1005ha의 휴경지를 확보하고 이들 휴경지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농림부등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인삼의 재배적지는 북위 36~38도 사이에 위치한 중부지방이며 특히 민통선내 지역은 고품질의 홍삼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 농가들은 민통선내 휴경지에 인삼 재배를 희망하고 있으나, 군단국이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인삼밭은 군 작전상 장애를 줄 수 있다며 재배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녹용등급상·중·하표기 한약협, 복지부등에 건의

회분함량에 따른 녹용구분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한방계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약협회는 최근 녹용을 상중하로 분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현재 녹용의 분류는 회분의 함량에 따라 25% 미만인 경우 녹용으로, 25~35%는 녹용각, 35%이상은 녹용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녹용각과 관련, 한방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약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방관련 한의약서 어느 곳에도 녹용각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으며 녹용을 사용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녹용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역지로 작명해 정당화시키려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약협회는 녹용을 회분함량에 따라 △상품(25%이하) △중품(25.01~35%) △하품(35.01~45%)로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인삼수요 큰폭 증가 수출실적 지난해보다 20% 증가전망

최근 홍삼 추출물의 다이옥신 방어 효과가 알려지면서 인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앞으로 인삼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90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인삼 수출이 6월 말 현재 증가세로 발전된데다 99년 인삼 신규재배 면적이 3794ha로 98년 보다 30% 이상 증가해 인삼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림부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방어에 '고려인삼'의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인삼 수출 실적은 98년 8,700만 달러보다 20% 가량 증가한 1억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7월8일 홍콩국제 인삼 심포지엄, 9월10일 이탈리아 볼로

### 야생차 연구소 설립

#### 경남도농업기술원, 우수개체 선발-육묘법 개발

녹차등 날로 소비가 늘고 있는 야생차를 농가소득원으로 집중 개발하고 우량 차품종 육성과 전통차의 과학적 제조법등을 연구할 '야생차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전문 연구사 2명을 전담연구원으로 야생차연구소를 7월말 열고 야생차의 소득화와 경제력 제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을 연 야생차

연구소는 하동군이 녹차재배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지역내에 야생차생태연구소 설치를 도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야생차연구소는 도내 자생차나무를 대상으로 우수개체를 선발하며 다원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생력 육묘법 개발, 녹부산물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및 세제개발 등 부가가치제고와 농가소득증대방안을 동시에 연구한다.